

“선발승 무덤덤...이닝 이터 되고 싶다”

데뷔 8년만에 선발승
KIA 심동섭



삼성전 5이닝 무실점 호투

1929일만의 선발 등판 설레

마지막 이닝처럼 전력 투구

데뷔 8년 차에 거둔 선발 첫 승에 대한 소감은 “잘 모르겠다. 무덤덤하다”였다. KIA 타이거즈 심동섭은 지난 3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임시 선발로 등판, 5이닝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깜짝 호투를 했다.

5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지고 내려간 심동섭은 6회초 타진 버나디아의 선제 솔로포에 힘입어 팀이 5-1 승리를 거두면서, 이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계투진으로 나와 13승을 거뒀던 심동섭의 통산 14승이자 선발 첫 승이었다.

선발진 위기에서 기대 이상의 호투로 위기의 팀을 구하고 승리투수까지 됐지만 심동섭은 무덤덤하다.

지난 31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만난 심동섭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특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무덤덤하다. 팀 승리만을 중점에 두고 마운드에 올라서 그런지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며 “어제 아이싱을 하느라 점수 나는 상황도 못 봤다. 내 승리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옆에서 형들이 오히려 의식하고 신경 써서 내가 민망했다. 표정관리 하느라고 혼났다”고 웃었다.

2012년 선발로 세 차례 나선던 심동섭에게는 1929일 만의 선발 등판이었다. 오랜만의 선발 등판이라 어색했던 심동섭이다.

그는 “선발로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언제 몸 풀러 나가야 하나, 유니폼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고 계속 (양)현종이 형한테 물어봤다(웃음)”며 “처음에 선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설렜다. 2012년 생각도 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자체가 좋고 설렜다”고 말했다.

선발 등판 전 김기태 감독과 이야기를 하면서 “6~7이닝은 책임지겠다”고 큰



3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투수 심동섭이 투구하고 있다.

소리를 쳤지만 심동섭은 매 이닝을 마치 막이라고 생각하고 전력으로 던졌다.

심동섭은 “전날 불펜이 많이 던지기도 했고 내가 많은 이닝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 이닝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던질 수 있는 베스트로 던졌다”고 말했다.

선발 외유에 나선던 심동섭의 다음 등

판 자리는 미확정이다.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팀 승리에 역할을 하는 게 심동섭의 목표다. 이번 선발 등판을 통해서 팀 주축 투수로서의 목직 한 책임감도 느꼈다.

심동섭은 “선발은 게임을 준비하는 것은 불펜에 비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닝, 선발이라는 책임감이 드는 것 같

다. 또 점수에 대한 무게도 달랐다”며 “어제 8~9회를 지켜보는 데 선발로서 보니 5점이 큰 점수가 아니었다. 불펜에 있을 때는 5점이 크게 느껴졌는데 어제는 많이 달라 보였다. 불펜에서 더 완벽하게 역할을 하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기태 감독, 두산전 취재진 몰리자

“오늘 중요한 시합인가요?”

덕아웃 T 톡톡

▲어깨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 선배들 눈에는 기특한 후배 심동섭이다. 지난 30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임시 선발로 나서 팀의 5-1 승리를 책임졌던 심동섭. 지난 31일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심동섭을 흐뭇한 표정으로 보며 지나가던 선수들. 이 명기는 심동섭의 어깨를 가리키며 “(어제 잘 던졌다고)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다”고 장난을 쳤다. 심동섭은 “명기 형이 잘 쳐줘 이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앞은 생각 못했네 = 심동섭의 호투에 “대단했다”며 감탄을 한 김기태 감독. 31일 심동섭의 전날 피칭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보셨다시피 구위가 좋았고, 템포도 빨랐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심동섭의 선발 무력시위(?) 아니냐는 취재진의 말에 김 감독은 “말을 하지. 캠프에서부터 동승이가 오로지 뒤(마무리)만 보고 있어서 앞(선발)은 생각 못했다”고 웃었다.

▲중요한 시합인가요? = 챔피언스필드에 이목이 집중됐다. 두산 베어스가 KIA 타이거즈의 지난 31일 안방을 찾으면서 1·2위 팀이 세게 붙었다. 두 팀의 ‘빅매치’에 취재진의 열기도 뜨거웠다. 기사 실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챔피언스필드를 찾으면서 포스트 시즌을 방해했다. 이날 취재진과의 자리를 위해 인터뷰실을 찾은 김기태 감독은 많은 취재진을 보고 “오늘 중요한 시합인가요?”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어? = 훈련 시간에 캐치볼을 하러 나온 나지완이 슬픈 표정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았다. 나지완의 얼굴을 보고 웃음이 터진 이는 이병호와 캐치볼을 하고 있던 타케시 포수 코치였다. 나지완은 다케시 코치와 캐치볼을 하는 날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다. 나지완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캐치볼을 시작했고, 다케시 코치는 다시 한번 웃음을 터트렸다. 한편 휴식기 동안 반바지 차림으로 훈련을 했던 KIA는 날씨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이날 긴바지 차림으로 돌아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리안 메이저리거 소식

주춤 류현진, 4이닝 3홈런 맞고 6실점

맹렬한 기세로 후반기 에이스로 도약하던 류현진(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주춤했다.

류현진은 지난 31일 메이저리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3홈런 포함 8안타를 내주고 6실점에 패전의 멍에를 썼다.

다저스가 4-6으로 패하면서 류현진은 6월 6일 워싱턴 내셔널스전 이후 11경기, 86일 만에 패전 투수가 됐다. 시즌 7패(5승)째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34에서 3.71로 올랐다.

이날 부진으로 포스트시즌 선발 경쟁에서도 한 발짝 물러났다.

메이저리거 30개 구단 중 유일하게 4연패를 당하지 않았던 승률 전체 1위 다저스는 시즌 첫 4연패 늪에 빠졌다.

출발부터 불안했다.

류현진은 0-0이던 1회말 1사에서 애덤 로살레스에게 조구 113km 커브를 던지다 솔로 아치를 허용했다.

악몽은 이어졌다. A.J. 폴록을 볼넷으로 내보내 위기를 자초한 류현진은 폴 드슈미트에게 조구 시속 143km 직구를 통

타당해 좌중월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류현진의 천적’ 골드슈미트의 타구는 132m를 날아갔다.

류현진은 2회 케틀 마르테에게 중전 안타를 맞고 투수 로비 레이의 희생 번트 때 나온 다저스 포수 오스틴 밴스의 2루 송구 실책으로 1사 1·2루에 몰렸다. 이후 데이비드 페달타와 로살레스를 범타 처리해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다.

하지만 3회에는 추가 실점을 했다. 류현진은 3회 2사에서 볼넷을 허용했다. 후속 타자 드루어리가 중앙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로 마르티네스를 불러들였다.

류현진은 4회에 완전히 무너졌다.

선두 타자로 나선 타올 1할대의 크리스 허먼에게 중월 솔로포를 맞았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서 3홈런 이상을 내준 건, 6월 12일 신시내티 레즈전(3피홈런) 이후 10경기 만이다. 류현진은 투수 레이에겐 중전 안타를 맞더니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에 몰렸다.

로살레스를 병살타로 유도했으나 2사 3루에서 폴록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고 추가 실점했다. 올 시즌 개인 최다 자책점(6개)이다.

/연합뉴스

질주 김현수, 2·3루타 멀티히트 1득점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장타 2방을 터트리며 부진 탈출 신호탄을 쏘았다.

김현수는 지난 31일 메이저리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더블헤더(DH) 2차전에 8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1득점으로 활약했다.

김현수는 8월 23일 마이애미 말린스와 더블헤더 1차전 이후 8일 만에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에 성공했다.

특히 안타 2개 모두 장타라는 점이 돋보였다. 김현수가 한 경기 장타 2방을 터트린 건 지난해 6월 29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428일 만이다.

2회 포수 파울플라이, 4회 유격수 땅볼로 몰려나 김현수의 방망이는 7회 시원하게 터졌다.

김현수는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애틀랜타 선발 홀리온 테헤란의 투심 패스트볼을 받아냈다. 타구는 라인드라이브로 가운데 담장을 직격했고, 김현수는 2루에 안착했다.

김현수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 더욱 큰 타격을 당했다.

애틀랜타 마무리 아로디스 비스카이노의 슬라이더를 견어 올려 가운데 담장 상단을 맞았다. 30cm만 더 높게 날아갔어도 홈런이 됐을 만한 타구였다. 올 시즌 첫 번째이자 메이저리거 2호 3루타를 때린 김현수는 안드레스 블랑코의 외야 뜬공 때 홈을 밟아 시즌 16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한편, 김현수는 앞서 열린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필라델피아는 더블헤더 1차전 1-9, 2차전 2-5로 2경기를 모두 내졌다.

/연합뉴스

전력 재정비 광주 FC, 분위기 반전 노린다

내일 K리그 클래식 13R 제주전 순연경기...2승1무1패 우위

11위에 6점차 끌써...추격 불써·5연패 탈출 위해 꼭 이겨야



2주간의 휴식기를 보낸 광주 FC가 재정비를 끝내고 반전의 무대에 오른다.

광주 FC는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2017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른다.

이번 라운드는 제주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연기됐던 지난 5월 27일 경기로, 현재 11위 상주 상무와 승점 차가 6점까지 벌어진 최하위 광주 입장에서 추격을 위한 보너스 경기와 같다.

그렇다고 호락호락한 경기는 아니다. 부임 3일 만에 난적 전북 현대를 만났던 새 사령탑 김학범 감독에게는 진짜 데

뷔전이나 다름없는 경기. 여기에 상대가 전북, 울산 현대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제주다.

광주가 제주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다면 이후 이어지는 인천 유나이티드, 상주와의 대결에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최하위 탈출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5연패에 빠진다면 광주는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김학범 감독의 축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선수단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복전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지난 2주간 순천 전지훈련 등을 통해서 팀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았다. 새로운 코치진도 선임해 ‘김학범호’의 체제도 갖췄다. 광주는 순천 전지훈련에서 체력과 조직력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해 팀 내부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새로운 조합을 구성했다. 또 선



수단 영화 관람과 회식, 레크리에이션으로 떨어진 팀 사기도 끌어 올렸다.

올 시즌 순위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광주는 제주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역대 전적에서 5승 2무 4패로 앞서 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최근 4경기 동안 2승 1무 1패로 우위를 지

고 있다. 여기에 5개월 만에 광주를 만나게 되는 제주는 새로 꾸려진 팀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력을 재정비한 광주가 제주전 우위를 이으면서 분위기 쇄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